

# 새로운 자료와 시각으로 본 훈민정음의 創製와 頒布<sup>\*</sup>

## (Understudies of hunminjungum)

정 광<sup>\*\*</sup>

### 요약

이 논문은 신문자의 창제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와 시각으로 훈민정음의 제정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우선 이 논문에서 훈민정음을 제정하여 『龍飛御天歌』에 시험하고 이를 반포한 것이라는 종래의 통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훈민정음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만든 것이라는 주장을 부정하였다. 즉, 훈민정음의 제정은 세종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비밀리에 수행한 것으로 세종이 한자음 학습을 위하여 발음기호로 만든 것을 貞懿公主에 의하여 한문 구결을 變音吐着한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變音吐着’은 한자나 그 약자로 기록한 吐, 즉 구결을 훈민정음으로 기록하였으며 이로부터 우리말의 고유어를 훈민정음으로 기록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세종이 최초로 창안한 훈민정음은 ‘韻會’, 즉 『古今韻會』, 또는 『古今韻會舉要』를 번역하는 발음기호로 사용되었으나 貞懿공주에 의하여 吐의 표기에 사용으로 발전하였고 이어서 고유어의 전면적 표기에 이용되어 首陽大君 등에 의한 『釋譜詳節』에서 그 가능성을 시험하였다. 세종 스스로도 『月印千江之曲』에서 우리말 표기에 자신이 창안한 훈민정음을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月印釋譜』의 권두에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부재함으로써 頒布하기에 이른다.

지금까지 훈민정음의 반포로 알려진 『해례본 훈민정음』은 이 문자를 이용하여 한

---

\*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부설 언어정보연구소의 3월 월례발표회(2005년 3월 29일)에서 구두로 발표한 것이다.

이 논문은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AL2002).

\*\* 가톨릭대학교

자음 정리와 고유어 표기, 그리고 중국어 표준음 발음 전사에 사용되는 원리를 설명한 이론서로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문자를 반포한 것으로 보기에 너무나 전문적인 이론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훈민정음의 진정한 반포는 『월인석보』의 권두에 실린 ‘세종어제훈민정음’이 바로 세종이 창안한 훈민정음이란 신문자의 반포로 본다.

‘세종어제훈민정음’은 世祖 5년, 天順 3년에 간행된 『월인석보』의 권두에 부재되었지만 이 『월인석보』는 ‘新編’이었고 실제로는 세종 30년경(1448)에 간행된 舊卷의 『월인석보』(일명 『월인천강지곡석보상절』)가 있었고 이 책의 권두에 실린 것은 ‘世宗御製訓民正音’이 아니라 그의 생존 시에 간행된 『월인석보』에 부재된 것임으로 그냥 ‘訓民正音’이었음을 주장하였다. 이 부분이 단독으로 편철되어 향간에 유포되었으며 그것이 朴勝彬 소장의 ‘原本 訓民正音’이었음을 밝혔다.

## 1. 緒論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아직도 여러 가지 학설이 난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에 대하여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려는 진지한 연구가 없었고 일제 强占期에 일본인 학자들의 偏向된 시각에 의한 연구를 해방 후에 우리 연구자들이 그대로 盲從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일제 치하에서 제한된 자료를 갖고 연구한 한국 연구자들이 國粹主義에 빠져들어 신문자 창제와 반포에 대하여 과장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에는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에 대한 많은 의문이 남아 있어 새로운 학설이 계속되어 提案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된 여러 학설 가운데는 전혀 사실을 歪曲한 것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시각에서 다른 자료를 갖고 새롭게 주장한 학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의 학설을 盲信하는 기성학자들에 의하여 이러

한 새로운 시도나 진실 규명의 연구는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무시되었다.

그동안 우리 학계에 정설로 인정된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에 대한 주장은 英明하신 世宗大王이 史上 類例 없는 문자를 만드셨는데 처음에 이를 집현전 학자들로 하여금 『龍飛御天歌』에 실험하였다가 세종 28년(1446) 소위 『해례본 훈민정음』의 간행으로 세상에 반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는 집현전 학자들이 신문을 제정하여 세종의 이름으로 반포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도 많이 유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주장에는 많은 모순이 있다. 첫째는 훈민정음을 실험하였다는 『용비어천가』의 국문가사는 해례본이 간행한 다음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문자를 실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sup>1)</sup> 세조 5년(1459)에 간행된 『월인석보』 新編의 제1권 卷頭に 훈민정음 국역본(‘世宗御製訓民正音’, 또는 諺解本 훈민정음으로도 불림)이 부재되었는데 이것은 한문으로 작성된 세종의 序文과 문자의 음가와 간단한 사용례를 부친 ‘例義’ 부분을 당시 우리말로 번역한

1) 세종 27년(1445)에 만들어진 『龍飛御天歌』는 (安止의 進箋文에 의거함) 權踞, 鄭麟趾, 安止 등에 의하여 편찬된 본문이며 우리말의 노래는 있었으나 이것을 신문자로 기록하지는 못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漢詩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의 3인은 정인지를 빼고는 훈민정음 창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신문자가 창제 된지 1년 남짓한 세종 27년에 그들이 『龍飛御天歌』의 국문가사와 같은 유려한 우리말을 훈민정음으로 기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위 세 사람의 관직을 보면 權踞는 “崇政大夫 議政府右贊成 集賢殿大提學 知春秋館事 兼成均大司成”이었고 鄭麟趾는 “資憲大夫 議政府右參贊 集賢殿大提學 知春秋館事 世子右賓客”이었으며 安止는 “嘉善大夫 工曹參判 集賢殿提學 同知春秋館事 世子右副賓客”이었다. 이러한 원로 정치인들이 갓 새로 만든 신문자를 배워 용비어천가의 국문가사를 기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세종 29년(1447) 10월에 훈민정음의 해례에 참여한 崔恒, 姜希顔, 申叔舟, 成三問 등이 『용비어천가』의 註解를 붙여 간행할 때에 국문가사도 신문자로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것이다. 이것으로 신문자를 익히도록 하여 『월인석보』의 한글을 읽을 수 있게 한 것이니 이것이 오히려 훈민정음의 반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례본의 간행을 신문자의 반포로 보려는 종래의 태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더구나 최근 景泰 6년(1455)에 제작된 『월인석보』의 玉冊이 발견되어 그 진위 여부가 논의되고 있어 혹시 이것이 세종 생존 시에 간행되었다는 『월인석보』의 舊卷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필자의 연구도 있다(줄고:2001). 『월인석보』의 ‘舊卷’은 현재 초간본으로 알려진 신편의 卷頭に 붙어있는 세조의 御製 序文에 언급되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서문의 내용이 무시된 것은 일제 강점기 학자들의 연구를 그동안 우리 학계가 비판 없이 수용한 때문이다. 즉 『월인석보』에 관하여 처음으로 본격적인 書誌學的 연구를 시도한 일본인 불교학자 江田俊雄氏의 주장을 그대로 盲從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정광 외:2006). 따라서 이제는 훈민정음 제정과 반포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 2.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

훈민정음의 제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한반도에서는 오래 전부터 한글과 같이 우리말을 기록하는 표음문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찍부터 통치문자로 한반도에 導入되어 쓰이던 한자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말을 표기하려고 시도하였다. 또 한반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던 중국대륙의 문화를 수입하기 위하여 중국어의 학습이 필요하였는데 表意文字인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어와 한문을 학습하기 위하여 發音記號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표

음문자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한반도에서는 문자생활을 하는 지식인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요구되었다. 신문자의 창제에 앞서 우리 선인들의 표음문자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 2.1 漢字의 流入과 이두, 구결표기

한반도에는 古朝鮮의 衛滿朝鮮 시대에 중국어와 더불어 한문이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적어도 漢四郡 시대에는 漢字가 統治文字로서 도입되어 만주 남부와 한반도의 언어를 한문으로 기록하였다(참고:2003). 漢文으로 만주 남부나 한반도의 언어를 기록한다는 것은 중국어로 이들의 언어를 번역하여 한자로 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문 표기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 바로 인명, 지명, 관직명과 같은 고유명사의 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유명사는 처음에는 어떤 구체적 의미를 가졌던 것이 점차 본래의 어휘적 의미는 멀어지고 그저 어떤 사람의 이름, 어느 지역의 명칭으로 굳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고구려 시조인 東明聖王의 이름이 高朱蒙인데 ‘朱蒙’은 당시 고구려어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란<sup>2)</sup> 의미를 가진 말이었으며 ‘鄒牟, 衆解’ 등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러한 의미는 거의 없어지고 사람의 이름으로 굳어진 것이다.<sup>3)</sup>

이렇게 고유명사를 표기하기 위하여 한자의 뜻과 발음을 빌려 현지어를 표기하는 방법이 고대 삼국에서, 특히 신라에서 발달하였다.

2) 이에 대하여는 1 삼국사기·(권13) 高句麗 本紀 제1에 “始祖東明聖王 姓高氏 諱朱蒙 一云鄒牟 一云衆解(중략) 年甫七歲 巍然異常 自作弓矢 射之 百發百中 扶餘俗語 善射爲朱蒙 故以名云(하략)”이란 기사를 참조.

3) 地名이나 人名의 표기에서 “무너미(물이 넘어 드러오는 마을)”를 ‘水踰里’로, “두 물 머리”를 ‘兩首里’로 원래의 뜻을 찾아 한문으로 적는 경우도 있지만 “되너미(청나라 때에 되놈들이 넘어온 곳)”를 ‘敦岩洞’과 같이 유사한 발음으로 적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신라어로 “세상을 싫어하는 厭世主義者”를 ‘異次頓’이라 하였다. 이것은 신라어로 된 인명을 한자의 발음을 빌려서 표기하는 방법이고 또 이를 ‘厭觸’이라고도 썼으며<sup>4)</sup> 이것은 뜻과 발음을 빌려 표기하는 방법이었다. 이와 같이 한자의 발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것이 바로 吏讀과 口訣의 시작이 되었다.

吏讀은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기록하는 것을 말하고 신라 향가를 쓴 鄉札 표기가 이두사용의 가장 완성된 모습으로 일본의 가나문자의 수준으로 우리말을 표기하였다. 구결은 한문을 읽을 때에 助詞나 語尾, 즉 吐를 삽입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거나 우리말로 풀어 읽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아마도 처음에는 한문을 완전히 풀어 읽을 수 있도록 口訣을 붙이는 釋讀口訣의 방법만이 있었으나 한문이 많이 보급되면서 구절이나 문장 말에 토를 붙이는 順讀구결(혹은 誦讀구결이라고도 함)의 방법이 개발되어 사용된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吏讀, 口訣은 우리말을 표기하는데 매우 불편하였다. 『해례본 훈민정음』의 卷尾에 붙어 있는 鄭麟趾의 後序를 보면 “(전략) 昔新羅薛聰 始作吏讀 官府民間 至今行之 然皆假字而用 或澁或窒 非但鄙陋無稽而已 至於言語之間 則不能達其萬一焉--옛날에 신라 설총이 이두를 처음 만들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청이나 민간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이 모두 한자를 빌려 쓰는 것이어서 혹은 꺾꺾 하고 혹은 막히고 비단 속되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언어를 적는 데는 그 만에 하나도 도달하지 못 한다--”라고 하여 이두가 우리말을 기록하는 데 얼마나 불편했는가를 말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는 『三國遺事』(권3) ‘原宗興法 厭觸滅身’ 조를 참고할 것.

## 2.2 새로운 중국어의 대두

中國은 국토가 廣闊하여 수많은 민족으로 구성되었고 그 言語도 多種多岐하다. 그리하여 각 시대별로 각 민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言語가 필요하게 되었다. 周代에는 공동의 言語가 있었지만 이를 지칭하는 말이 없었으며 春秋時代에는 이를 ‘雅言’이라고 하였다. 戰國時代에는 六國이 모두 자기나라 말로 표준어를 삼았으나 周의 수도 洛陽의 言語를 기초로 한 雅言은 이 시대에도 上流社會에서 통용되었고 三經과 四書의 言語는 이 雅言으로 풀이되었다. 이와 같은 雅言의 한자음을 上古音이라고 한다.

上古시대의 중국 주변에는 여러 異民族이 있었고 그들도 이 古文에 의거하여 자국의 역사 등을 기록하였는데 그들의 언어에 영향을 받아 古文의 문법과 어긋나는 점이 있었다. 이것을 變文이라 하고 敦煌 遺物에서 발견된 문헌 가운데 變文 자료가 적지 않다.

漢代에는 長安의 말을 기초로 한 共通語가 생겨나 ‘通語’, 또는 ‘凡通語’라고 하였으며 漢나라의 隆盛과 더불어 모든 방언을 초월하여 中國 전역에 퍼져나갔다. 또한 魏晉 이후 隋와 唐을 거치면서 長安을 중심으로 한 通語는 中國語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公用語로서의 地位를 누렸다. 이때에 이 凡語를 기초로 하여 散文을 쓰는 것이 유행하였으며 이것을 白話文이라고 하였다. 이 白話文은 古文이나 變文과 다른 또 하나의 文語가 생겨난 것이다.<sup>5)</sup>

특히 宋代에는 北宋이 中原에 定都한 후에 汴梁을 중심으로 한 中原 語音이 세력을 얻자 전시대의 漢音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韻書가 간행되었다. 특히 隋代에 陸法言의 切韻이 唐代 孫愐의 唐

5) 예를 들면 『三國志演義』, 『水滸傳』 등의 중국 고대소설은 이 白話文으로 쓰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 胡適 등이 主唱한 白話運動은 古文을 중심으로 한 문학에 대하여 口語를 기본으로 하는 문학운동이며 여기에 新思想 등을 가미한 것이다.

韻, 으로, 그리고 宋代 陳彭年과 邱雍의 廣韻, 으로 발전하여 中國語의 漢音은 韻書음으로서 정착하게 된다. 廣韻을 기본으로 한 禮部韻略, 등은 당시 科擧試驗의 標準 韻書이었음으로 이 韻書音은 전국적으로 널리 유포되었다. 이것을 필자는 한자의 中古音이라고 본다.

그러나 몽골에 의하여 건국된 元이 수도를 大都, 즉 燕京(지금의 北京)으로 정하자 이곳의 언어가 공용어로서 세력을 얻기 시작하였다. 元의 大都 周邊에는 많은 민족이 모여 살았고 그들 가운데는 중국어와 같은 고립어의 문법 구조가 아닌 膠着的 문법 구조를 가진 언어를 사용하는 북방민족도 섞여있었다. 이들이 日常生活이나 交易 등의 접촉에서 언어 소통을 위하여 중국어를 기본으로 하여 스스로 만든 공통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漢兒言語’이었다. 이 말의 한자 발음을 ‘蒙古音’이라고 불렀다.

이 漢兒言語는<sup>6)</sup> 앞에서 언급한 그동안의 중국에서 통용되던 通語와는 매우 다른 언어로서 우선 蒙古音은 종래의 中古音과 서로 달랐을 뿐만 아니라 언어구조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발음의 차이는 이미 中古音으로 학습한 고려인들의 중국어 지식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따라서 조려 후기와 조선 초기에는 蒙古音이라고 부르는 北京語의 발음을 학습하기 위하여 필사적이었다.<sup>7)</sup>

6) 이 漢兒言語는 明代에 漢人들에 의하여 수정되어 官吏들의 언어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北京官話라고 하였다. 이것은 明初에 南京官話의 영향을 받아 변질된 北京語를 말하며 이것은 清代 북경 만다린을 거쳐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표준어인 普通話의 母胎가 된 것이다(줄고: 2003).

7) 成三問은 『直解童子習』의 서문에서 중국어 학습에서 발음 학습의 어려움을 역설하면서 “(전략)號爲宿儒老譯 終身由之 而卒於孤陋(중략) 我世宗文宗慨然念於此 既作訓民正音 天下之聲 始無不可盡矣 於是譯洪武正韻 以正華音(하략)---이름난 유학자나 노련한 역관이라도 종신토록 그대로 가다가 고루한대로 마치게 된다.(중략) 우리 세종과 문종대왕께서 이에 탄식하는 마음을 가져 이미 만든 훈민정음이 천하의 모든 소리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전혀 없어서 이에 흥



元の 興隆으로 漢兒言語는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를 학습하기 위한 발음사전이 간행되기도 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古今韻會』(1292)이었다.<sup>8)</sup> 이 운서는 앞에서 언급한 『廣韻』 등 切韻系 운서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훈민정음 창제 이후 처음으로 世宗이 이 운서를 번역하도록 명한 바 있다. 우리 한자음의 母胎인 中古音과 元の 공용어인 蒙古音의 차이를 밝히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연구가 바로 고려와 조선에서 譯學을 크게 발달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다.<sup>9)</sup>

『古今韻會』는 元代의 漢兒言語를 학습하기 위하여 蒙古 ㅍ스와 (八思巴) 문자로 편찬된 『蒙古字韻』, 『蒙古韻略』<sup>10)</sup> 등의 운서를 기초로 한 것이다. 실제로 『古今韻會』에는 『蒙古字韻』<sup>11)</sup>으로부터 인

무정운을 번역하여 중국어의 발음을 바로 잡았다--”라고 하여 세종과 동궁이 중국어 학습을 위하여 이 문자를 제정한 것으로 보았다.

- 8) 『古今韻會』는 元代 黃公紹가 지은 龍大한 北京 發音의 韻書로서 실제로 간행되지 못하고 그의 제자인 熊忠이 이를 간소화한 『古今韻會舉要』가 간행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現伝하는 『古今韻會舉要』에는 元 大德 元年(丁酉, 1297)에 쓴 熊忠의 自序가 至元 28년(壬辰, 1292)에 작성된 劉辰翁의 序文과 함께 실려 있다. 이 때에 刊行된 初刊本の 30卷 10冊이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華山文庫에 現伝한다. 이 책의 卷頭에는 “禮部韻略七音三十六母通攷”라는 제하에 ‘蒙古字韻音同’이란 소제를 붙이고 “韻書始於江左 本是吳音 今以七音韻母通攷韻字之序 惟以雅音求之無不諧叶”라고 하여 『古今韻會』가 어느 정도 北方音을 受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朝鮮 崔世珍의 『四聲通解』 卷頭に 附載된 26조 凡例 가운데 “(전략)黃公紹作韻會字音則亦依蒙韻(하략)”라고 하여 韻會가 元代 蒙古韻의 계통임을 증언하고 있다.
- 9) 譯學은 譯官을 양성하기 위하여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고려와 조선시대는 학문 분야를 10개로 나누고 해당 館所에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고려 恭讓王은 10학을 두었고(『高麗史』 권77) 조선조에서는 태조가 6학(兵學, 律學, 字學, 譯學, 醫學, 算學)을 두어 양가자제를 교육하였고(『태조실록』(권2) 태조 2년 10월조) 태종은 태조의 六學에 ‘儒學, 吏學, 陰陽風水, 樂學’을 추가하여 十學을 두었다.
- 10) 『蒙古韻略』은 조선 중종 때에 崔世珍이 간행한 『四聲通會』에 그 서명이 보이거나 현전하지 않는다. 아마도 『蒙古字韻』의 축소판일 것이다. 유창균(1978) 참조.
- 11) 現전하는 『蒙古字韻』은 大英博物館에 소장되었고 그 판본의 권두에 있는 朱宗文의 自序에 ‘至大 戊申 清明 前1日’이란 간기가 있어 元 武宗 元年(戊申,

용한 구절이 많이 보인다. 따라서 현전하는 『蒙古字韻』의 판본은 『古今韻會舉要』보다 후대지만 그 이전에 간행한 것이 있었고<sup>12)</sup> 아마도 몽고운서에 의거하여 燕京의 漢兒言語音을 정리한 것이 『古今韻會』라고 생각된다. 『蒙古韻略』은 현전하는 것이 없으나 『蒙古字韻』에 의하여 그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유창균: 1978).

전술한 몽고 운서에서 한자음을 기록한 팍스파(八思巴) 문자는 원 세조가 喇嘛僧 八思巴로<sup>13)</sup> 하여금 제정하게 한 것이다. 그는 西藏 문자를 變改하여 새로운 표음문자를 제정하였는데 元 世祖 6년(1269)에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이 문자는 기본적으로는 한자의 발음 표기를 위하여 제작되었으나 몽고어의 표기에도 이용되어 원 세조 이후에는 이 문자를 正文으로 하기도 하였다. 이 팍스파(八思巴) 문자는 고려 후기에 한반도에 유입되어 몽고어 학습과 더불어 널리 알려졌으며 조선 초기의 譯科 시험에는 몽고어 시험에서 이 문자가 출제되었다(졸저:1990).

중국어의 이 문자의 36자모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sup>14)</sup>

---

1308)에 간행된 것이다. 따라서 현전하는 『蒙古字韻』(1308)은 『古今韻會舉要』(1297)보다 후대에 간행된 것이지만 이미 『古今韻會』(1292)에 그 서명이 인용되었으므로 이 판본은 후대의 교정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2) 최세진의 『四聲通解』에 전제된 신숙주의 『四聲通攷』에는 『蒙古韻略』이란 운서가 보이는데 이것은 『古今韻會』보다 이른 시기의 운서로 보인다.

13) 원래 八思巴는 土蕃의 薩斯嘉 사람으로 喇嘛敎의 大寶法王이었으나 忽必烈汗이 土蕃을 征伐할 때에 포로가 되어 燕京으로 끌려왔던 사람이다. 忽必烈汗이 大汗이 되어 元의 世祖가 되자 八思巴의 學識을 높이 사서 그를 國師로 모셨다. 元 世祖는 그에게 몽고인의 한자 학습과 몽고어를 기록하기 위한 문자를 제정하도록 명하였는데 그는 蒙古人이 한자음을 학습할 때에 발음기호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몽고어도 기록할 수 있는 八思巴문자를 만들었다.

14) 이에 상응하는 훈민정음의 『동국정운』 23자모표는 다음과 같다.

	牙音	舌頭音	舌上音	唇重音	唇輕音	齒頭音	正齒音	喉音	半舌音	半齒音
全 清	見 ㄱ	端 ㄴ	知 ㄷ	幫 ㄹ	非 ㅍ	精 ㅊ	照 ㄷ	影 ㄴ		
次 清	溪 ㅋ	透 ㄴ	徹 ㄷ	滂 ㅍ	敷 ㅍ	清 ㅊ	穿 ㅊ	曉 ㄴ		
不清不濁	疑 ㄱ	泥 ㄴ	娘 ㄴ	明 ㅁ	微 ㅍ			喻 ㄴ	來 ㄴ	日 ㄴ
全 濁	群 ㄱ	定 ㄴ	澄 ㄷ	並 ㄹ	奉 ㅍ	從 ㅊ	床 ㄷ	孃 ㄴ		
全 清						心 ㅈ	審 ㅈ	(么)		
全 濁						邪 ㅈ	禪 ㅈ			

『蒙古字韻의 36자모표』

## 2.3 주변 민족의 문자 제정과 사용

고대시대의 東北亞에서는 한자가 유일한 문자였다. 설령 간혹 다른 민족이 발전시킨 문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거대한 선진 중국 문화를 등에 업은 한자에 밀려 소멸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중국에 들어온 梵字는 우월한 고대 인도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표음문자이어서 한자와는 여러 가지로 대조되는 문자였다. 한자의 권위에 눌려 지내던 주변 민족들의 문자생활은 梵字를 접하면서 점차 다르게 되었다.

신숙주의 『保閒齋集』에 수록된 ‘李承召碑銘’에 의하면 “世宗 以諸國各製字 以記國語 獨我國無之 御製字母二十八字--세종은 여러

	牙 音	舌 音	唇 音	齒 音	喉 音	半舌音	半齒音
全 清	ㄱ(君)	ㄴ(斗)	ㄷ(幣)	ㅈ(卽)	ㅇ(挹)		
次 清	ㅋ(快)	ㄷ(吞)	ㅌ(漂)	ㅊ(侵)	ㅎ(虛)		
全 濁	ㄱ(虬)	ㄷ(覃)	ㅌ(步)	ㅊ(慈)	ㅎ(洪)		
不清不濁	ㅇ(業)	ㄴ(那)	ㅌ(彌)		ㅇ(欲)	ㄴ(間)	ㅌ(穰)
全 清				ㅈ(戌)			
全 濁				ㅊ(邪)			

訓民正音 初聲 23字母圖

나라가 각기 글자를 만들어 나라의 말을 기록하는데 홀로 우리나라만 없어서 자모 28자를 임금이 만들었다--”라는 기사가 있어 앞에서 살핀 주변국가의 문자 제작에 관하여 세종이 익히 알고 있었고 그에 자극되어 신문자를 창제하였음을 알려준다. 훈민정음 제정 이전에 한반도 주변 민족의 문자 제정과 사용은 다음과 같다.

㉠ 西藏문자—먼저 西藏의 土蕃에서는 서기 64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梵語로 된 불경을 서장어로 번역하기 위하여 宰相 Thon-mi Sam-bho-ta를 인도에 파견하여 고대 인도의 문법학과 파아니니(Pāṇini) 음성학을 배우게 하였다. 그는 고국에 돌아 와서 서장어, 즉 티베트어를 기록할 수 있는 표음문자를 만들었으니 이것이 오늘 날에도 티베트에서 사용되는 西藏文字다.

㉡ 契丹문자—遼의 태조 耶律阿保機가 한자를 변형시킨 3천여자의 契丹大字를 만들어 神冊 5년(920)에 반포하였고 왕자 迭剌은 위글(Uighur)문자를 모방하여 표음적인 契丹小字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 女眞문자—金 태조 阿骨打는 完顏希尹(본명 谷神)으로 하여금 거란소자에 의거한 女眞大字를 만들게하여 天輔 3년(1119)에 반포하였다. 그 후 熙宗은 역시 完顏希尹으로 하여금 天眷 1년(1138)에 표음적인 女眞小字를 만들게 하여 사용하였다. 이 문자들은 표의문자와 표음문자를 혼효시킨 이두표기와 같은 방법의 표기법을 가졌다.

㉣ 蒙古畏兀字—몽고의 징기스칸은 畏兀人 塔塔統阿로 하여금 蒙古畏兀 문자를 만들게 하여 몽고어를 기록하였는데 후일 이것이 몽고의 전통문자가 되었다.

㊤ 八思巴문자- 원 世祖는 八思巴로 하여금 畏兀字와는 다른 신문자를 만들게 하여 이를 八思巴文字로 불렀는데 이 신문자는 그 모양이 方形이어서 일명 四角文字( Dörbörjin-帖兒月眞)로도 불리고 蒙古篆字, 몽고 字樣이라고도 하였다. 이 문자는 西藏(티베트)의 有頭體(dbu-čan) 문자를 개량한 것으로 음절 단위로 몽고어를 기록하게 한 음소문자였다.

이와 같이 중국을 제외한 주변국가에서는 건국초기에 자신의 언어를 표기하는데 적당한 신문자를 만들어 공포하는 일이 많았다. 특히 중국어와 다른 교착적 문법구조의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국가를 건설했을 때에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한자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한자를 변형시킨 문자들이 대부분이었다. 越南에서도 한자를 변형시킨 字喃(Chu nôm)을 14세기경부터 발달시켜 자국의 언어를 기록하였고 일본에서도 한자로 일본어를 표기하던 萬葉假名를 더욱 簡略化하여 片假名와 平假名로 발전시켜서 일본어를 기록하였다.

### 3. 훈민정음 제정과 頒布

훈민정음의 제정을 둘러싸고 아직도 많은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 단독의 창제인가? 集賢殿 학자로부터의 도움은 없었는가?, 둘째 어느 시기에 제정되었는가? 셋째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포 되었는가? 이제 이 각각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 3.1 훈민정음은 세종 단독의 창제인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종은 好學하는 君王으로서 많은 방면에 깊은 지식을 가졌다고 한다. 특히 譯學에 관심이 있어서 중국의 聲韻學에 대하여는 상당한 지식을 가졌던 것으로 崔萬理의 반대 상소문에 批答을 내릴 때에 그들의 聲韻學的 지식이 부족함을 매도한 바 있다.<sup>15)</sup>

『世宗實錄』에 훈민정음의 제정은 갑작스런 기사로 나타난다. 즉 『세종실록』(권 102) 세종 25년 12월 조에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중략) 是謂訓民正音”이란 기사가 훈민정음의 제정에 관한 최초의 실록 기사다. 따라서 세종은 혼자서, 아니면 은밀하게 신문자를 준비하였고 이것을 이날 갑자기 신하들에게 알린 것이다.

여기서 세종이 가족을 동원하여 신문자 제정이라는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수행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훈민정음 제작에 동궁(후일 文宗)과 首陽大君 등의 아들들이 깊이 관여한 일은 실록의 기사 도처에서 발견된다. 수양대군이 安平大君, 信眉, 金守溫 등과 함께 宋의 僧侶 道宣의 『釋迦譜』와 僧 祐의 『釋迦氏譜』를 당시 우리말로 번역하여 신문자로 기록한 것이<sup>16)</sup> 훈민정음을 사용한 최초의 노작임을 볼 때에 이러한 주장은 가능성이 있다.

또 『竹山安氏族譜』에 세종의 따님인 貞懿公主가 신문자로 “變音

15) 『洪武正韻譯訓』(단종 3년, 1455)의 申叔舟 서문에 “我世宗莊憲大王 留意韻學 窮研底蘊 創製訓民正音若干字 四方萬物之聲 無不可傳--우리나라 세종 장헌 대왕께서 운학에 뜻을 두시어 깊이 연구하시고 훈민정음 약간자를 창제하시니 사방 만물의 소리가 전할 수 없는 것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여 세종 자신도 운학에 조예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

16) 이에 대하여는 首陽君의 ‘釋譜詳節序’에 “又以正音으로 就加譯解 訶노니--또 正音으로써 곧 因訶야 더 飜譯訶야 사기노니-- 庶幾人人이 易曉訶야 而歸依 三寶焉이니라--사롭마다 수비 아라 三寶에 나사 가 븐긔고 ㅅ라노라--”를 참조할 것.

吐着”하여 세종으로부터 후한 상을 받았다는 기록은 그 진위를 떠나서 세종의 신문자 창제의 과정을 추리하게 한다. 필자는 세종이 처음에는 각종 韻書에서처럼 한자음의 聲韻을 분석하여 初聲, 中聲, 終聲으로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기호를 八思巴 문자와 같이 초성과 종성이 동일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때까지는 어디까지나 발음기호로서 신문자를 만든 것이다. 그리하여 『훈민정음』 권두에 붙어 있는 세종의 어제 서문은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 不相流通--{한자음의} 국어발음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 있는 한문 읽기에서 口訣의 사용이 있었으며 이것을 통하여 한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음은 상상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런데 이 구결은 吐로서 한문 문장에 삽입하는 우리말이다. 따라서 이두와 같이 한자의 뜻과 발음을 빌려서 기록하게 된다. 예를 들면 “ᄒ나(爲乃, ㄴㄺ), ᄒ고(爲古, ㄴㄱ), ᄒ야도(爲也刀, ㄴㅃㄺ), ᄒ리잇고(爲利是古, ㄴㄹㅇㄱ), ᄒ습더시니(爲土邑加示尼, ㄴㅅㅇㄱㅇㄷㅇㅅㅇㅇㅇㅇ)” 등과 같다. 口訣, 또는 吏讀에서는 正字나 略字의 경우에 한자와 달리 읽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한자를 쓰지 않고 신문자를 대입하여 쓴 것이 變音吐着(발음을 달리 하여 토를 달다)이 아닌가 한다. 즉 한자 ‘爲’가 [위]가 아니고 [ᄒ]로 발음 되거나 ‘是’가 [시]가 아니고 [이]로 되는 것을 한자를 아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를 신문자로 적은 것이다. 이것은 이 문자가 우리말을 적을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세종은 여기에서 크게 깨달아 이 문자로 우리말을 전면적으로 표기할 생각으로 나아간 것으로 본다.

세종이 가족 중심의 비밀프로젝트로 신문자 제정 사업을 수행했다는 추측은 다른 집현전 학자들을 제치고 둘째 아들인 首陽大君과 셋째인 安平大君 등이 『釋譜詳節』을 언해하여 신문자로 기록하게 하

였다는 사실로부터 나온 것이다. 새로운 문자로서 우리말의 표기가 가능한지를 시험하는 일에 가족을 동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하자 스스로 『月印千江之曲』을 지어 신문자 사용을 시험하였다.<sup>17)</sup> 또 이렇게 한자의 발음기호로부터 우리말을 기록하는데 사용하도록 발전한 것은 貞懿公主가 이 문자로 口訣을 表音함으로써 그 契機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새로운 문자를 제정하는 사업에 가족을 동원하였고 그로부터 세종이 가족과 더불어 비밀리에 이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또 이것은 한자와 한문, 그리고 儒敎에 찌들은 文臣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集賢殿 학자의 도움이 없이 세종 혼자서 신문자를 발명하였는지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대하여 논의하면 이에 대하여는 최만리의 반대상소문이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최만리는 집현전의 副提學이며<sup>18)</sup> 그와 함께 上疏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모두 집현전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들이 반대 상소문을 올릴 까닭이 없다. 다만 해례본 『훈민정음』은 이들 가운데 세종의 親揀名儒<sup>19)</sup> 8인이 편찬한

17) 『월인천강지곡』에 수록된 600수 가까운 讚佛歌를 세종 단독으로 지었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가 있다(사재동:1995). 그러나 信眉, 金守溫 등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세종이 이를 일일이 점검하였을 것이고 결국은 『월인천강지곡』이 세종의 작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세종이 이 찬불가를 신문자로 적으면서 우리말 표기에 이 문자의 타당성을 시험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18) 집현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임금을 위한 經筵(임금과 경학을 강론하는 일종의 세미나)과 書筵(세자와 경학을 논함), 및 宗學(왕족을 교육하는 것)을 준비하는 이었으며 古制를 상고하여 임금의 諮問에 응하거나 왕실의 중요한 서적의 편찬에도 관여하였다. 집현전의 최고위직은 大提學이고 그 밑에 提學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大臣이나 文臣이 例兼하고 실제로 집현전의 祿職은 副提學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부제학은 집현전의 실질적이 總帥라고 할 수 있다.

19) 세종 때에 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어문정책을 수행할 때에 왕의 至近 거리에서 도와주었던 8인의 儒臣을 말한다. 申叔舟, 成三問,



것으로 세종 친제의 신문자 28자에 대한 해설서라고 할 수 있다.

### 3.2 훈민정음 제정 시기

훈민정음이 제정된 시기는 전술한 바와 있는 『세종실록』의 기사에 의하면 세종 25년(1443) 12월이라고 본다. 훈민정음에 관한 기사는 『세종실록』에 두 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세종 25년 12월의 기사와 또 하나는 세종 28년(1446) 9월의 기사에 보이는 “是月 訓民正音成御製曰 國之語音 異乎中國(하략)”이다. 한 때 후자의 ‘訓民正音’이 문자의 완성으로 보고 한글날을 이 날로 기념하였으나 이것은 속칭 ‘해례본’으로 불리는 『훈민정음』이란 책자의 완성을 말한 것이다. 후일 해례본 『훈민정음』의 간행이 신문자의 頒布로 간주하여 이 책이 간행된 정통 11년(1446) 九月 上澣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9일로 하고 이를 한글날로 기념하게 되었으나 이때에 문자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해례본 『훈민정음』은 후일 집현전 학자들이 세종의 친제한 正音 문자를 중국의 聲韻學과 性理學的 연구방법으로 해설한 것이다. 해례본의 도처에서 세종과는 다른 의견이나 해설이 보인다. 따라서 해례본은 훈민정음의 해설서에 불과하며 또 頒布로 볼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 책이 간행된 날을 훈민정음 창제의 기념일로 삼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 3.3 훈민정음의 頒布

훈민정음의 반포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해례본 『훈민정음』의

---

崔恒, 朴彭年, 李塏, 李善老, 姜希顔, 鄭麟趾 등인데 정인지는 당시 집현전 大提學이었음으로 8인에 넣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졸고(2002b) 참조.

간행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세종이 신문자를 창제하여 맨 처음 시도한 것은 『古今韻會』의 번역이었으며 이것은 새로 만든 문자로 이 韻書에 정리된 蒙古音, 즉 당시 北京音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貞懿公主의 암시로 우리말을 전면적으로 표기하는데 이 문자를 사용하기에 이르러 먼저 首陽大君 등으로 하여금 『석보상절』을 편찬하게 하였고 세종 스스로가 『월인천강지곡』을 편찬함으로써 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두 책을 합편하여 『월인석보』를 간행하면서 세종이 최초로 작성한 ‘御製序文’과 ‘例義’<sup>20)</sup>부분을 당시 우리말로 풀어서 권두에 부재하였다.

그러나 이 『월인석보』는 세조 5년(天順 3년, 1459)에 초간본이 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필자의 의견으로는 세종 30년경에 이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합편하여 『월인석보』라는 이름으로 간행하면서 그 권두에 이미 훈민정음의 언해본을 부재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세조 때 간행한 『월인석보』 新編(이것을 세종 때에 간행한 『월인석보』의 舊卷과 구별하여 ‘新編’이라 부른다)에 부재한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거의 동일한 ‘훈민정음’이 학계에 보고 되었다. 즉, 박승빈씨 구장본의 ‘훈민정음’이 있는데 이것이 앞의 “세종어제 훈민정음”보다 고품으로 보인다(정연찬:1972). 필자는 이 ‘훈민정음’이 『월인석보』의 舊卷에 부재되었던 것으로 세종의 御製序文과 例義 부분만을 언해한 것으로 본다. 만일 세종 생존시에 『월인석보』가 간행되었고 권두에 훈민정음의 언해본을 붙였다면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의 반포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21)</sup> 즉 언해된 훈민정음으로 신문자

20) ‘例義’는 “ㄱ 牙音 如君字初發聲--ㄱ는 엄쏘리니 君군ㄷ 字중 처섬 꺾어나난 소리 ㄱㅌ니--”, “· 如吞字中聲--·는 呑툰ㄷ 字중 가온뒷 소리 ㄱㅌ니--”와 같이 세종이 훈민정음 初聲 17자, 中聲 11자에 대한 문자와 음가, 그리고 음운의 성격을 例示하여 설명한 것으로 정인지의 후서에 ‘略揭例義-간략하게 예와 뜻(음가를 말함)을 들었다’라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세종의 서문과 함께 석장 반인데 이를 언해하여 모두 15장이 되었다.

를 학습해야 『월인석보』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 4. 『月印釋譜』와 훈민정음

앞에서 『월인석보』가 훈민정음 제정과 반포에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과연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 그리고 『월인석보』는 어떻게 편찬되었는지 고찰하기로 한다. 『釋譜詳節』의 간행에 대하여는 현전하는 판본의 권두에 있는 首陽大君 서문에 자세히 설명되었고 그 간행도 서문 末尾에 “正統十二年七月二十五日에 首陽君諱序 訖노라”라는 간기가 있어 세종 29년(1447) 7월 25일에 서문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월인천강지곡』의 편찬에 대하여는 『月印釋譜』新編의 卷頭に 부재된 世祖의 御製序文에 역시 그 편찬 경위를 적어놓았다.

즉 “乃進賜覽訖시고 輒製讚頌訖샤 名曰月印千江이라 訖시니”라 하여 『월인천강지곡』은 『석보상절』을 보시고 곧 釋迦에 대한 찬송을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두 책은 거의 동시에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곧 두 책을 합편하여 ‘월인석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으니 이것이 『월인석보』의 舊卷이며 아마도 세종 30년(1448)의 일로 보인다.

그동안 『월인석보』는 喜方寺 복각본을 비롯하여 권1, 2를 포함한 1책이 알려졌고<sup>22)</sup> 권1의 권두에 부재된 世祖의 ‘御製月印釋譜序’

21) ‘世宗御製 訓民正音’보다 ‘訓民正音’이란 題下의 국역본이 고형을 보이는 것은 이것이 世宗 조에 간행된 『月印釋譜』의 舊卷에 게재된 것으로 볼 때에 타당하다. 세종 생존시에는 ‘世宗御製’란 말이 붙을 수 없다. 왜냐하면 ‘世宗’이란 尊號는 왕이 사망한 후에 붙이기 때문이다.

22) 『월인석보』는 대부분 2권을 1책으로 편철하였다. 따라서 25권이 終卷이라는 주

末尾에 “天順 三年 己卯 七月 七日 序”란 간기로 天順 3년, 즉 세조 5년(1459)에 처음으로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서강대학교 소장의 초간본이 발견되어 더욱 확실한 사실로 학계에서는 인정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중국 모처에서 景泰 6년(1455)의 간기를 가진 『월인석보』의 玉冊을 찾아 학계에 보고하면서 어쩌면 이것이 世宗朝에 간행된 『월인석보』의 舊卷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발표한 일이 있다. 그 발표에서 서강대 소장본의 『월인석보』는 世祖조에 간행된 新編임을 주장하였다(줄고:2001).

『월인석보』에 신, 구권이 있음은 줄고(2002a)에서 처음 주장된 것으로 전술한 세조의 ‘御製月印釋譜序’에

念此月印釋譜는 先考所製시니 依然霜露애 慨增悽愴호노라  
 --念호디 이 月印釋譜는 先考지스산 거시니 依然호야 霜露애 애와  
 터 더욱 슬허호노라-- (찍어쓰기 발표자)

라는 구절이 있어 『월인석보』가 세조의 先考, 즉 세종의 편찬임을 분명히 말하였다. 이어서 같은 서문에

乃講劇研精於旧卷호며 櫟括更添於新編호야  
 --넷 글위레 講論호야 ㄱ다드마 다든게 至極게 호며 새 밍ㄱ논 글위  
 레 고터 다시 더어--,

出入十二部之修多羅호디 曾靡遺力호며 增減一兩句之去取호디 期致  
 盡心호야

--十二部 修多羅애 出入호디 곧 기튼 히미 업스며 혼 두 句를 더으며  
 더러브리며 뿌디 ㅁ슴다보물 닐웁 ㄱ장 ㄱ지호야-- 찍어쓰기 필자

라는 구절이 있어 원래 『월인석보』에는 舊卷(옛 글월)이 있었고 세조 자신 편찬한 것은 여러 불경의 내용을 添削한 新編(새 밍그논 글월)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序文에 분명하게 『월인석보』의 舊卷과 新編이 있음을 밝혀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하여 전혀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 학자의 연구를 金科玉條로 생각하는 몇몇 서지학자들의 盲信 때문으로 생각한다. 즉, 처음으로 『월인석보』의 편간과 서지학적인 문제를 다룬 일본인 불교학자 江田俊雄(1934, 1936a, b)의 학설을<sup>23)</sup> 우리 국어학계가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월인석보』 신편의 卷頭に ‘世宗御製訓民正音’이 부재되어 이것으로 신문자를 먼저 익히고 이어서 『월인석보』를 읽으라는 뜻이었음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오늘날 구권의 권1이 발견되지 않아서 확인은 할 수 없으나 아마도 『월인석보』의 구권에도 제1권 권두에 ‘훈민정음’이 부재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본체와 분리된 것이 朴勝彬 선생이 소장한 원본 『훈민정음』일 것으로 생각한다.<sup>24)</sup>

## 5. 훈민정음 제정의 경위

이상 훈민정음 제정에 대하여 그동안의 논의와는 다른 몇 가지 새로운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자료와 시각으로 다시 본 훈민정음의 제정 경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3) 江田俊雄의 『月印釋譜』와 『釋譜詳節』, 『月印千江之曲』에 대한 주장은 小倉進平(1940)과 小倉進平, 河野六郎(1964)에 그대로 수용되었다.

24) 『월인석보』 舊卷은 세종 生存時에 간행된 것임으로 ‘世宗御製’란 말이 붙을 수 없다.

세종 2년(1419)--좌의정朴堧의 계청으로 집현전 설치.

세종 13년(1431)--楔循이 어명을 받아『三綱行實圖』(한문본) 편찬.

세종 16년(1434)--『삼강행실도』 간행.

세종 24년(1442) 3월--『龍飛御天歌』의 편찬을 위한 준비.

『세종실록』 권95, 세종24년 3월 壬戌 조에 “時上方欲撰龍飛御天歌 故乃下此傳旨--이 때에 임금이 용비어천가를 편찬하고자하여 이 뜻을 아래에 전하다--”라는 기사 참조.

세종 25년(1443) 12월--세종이 훈민정음 28자를 친제함.

『세종실록』(권102, 세종 25년 12월 조에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중략) 是謂訓民正音-- 이 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다.(중략) 이것이 소위 훈민정음이라고 불리는 것이다--”라는 기사 참조.

세종 26년(1444) 2월 16일(丙申)--韻會의 번역을 명함.

『세종실록』 권103, 세종 26년 2월 丙申 조에 “命集賢殿校理崔恒(중략) 指議事廳 以諺文譯韻會 東宮與晋陽大君(瑅)·安平大君瑢 監掌其事 皆稟睿斷 賞賜稠重 供億優厚矣--집현전 교리 최항 등에게 명하여 언문으로 운회를 번역하게 하다. 동궁 및 진양(수양)대군 유와 안평대군 용이 그 일을 감독하고 관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모두 모두 품하게하여 직접 결정하다. 상을 내릴 때에는 많고 후하게 하고 모두 대우를 잘하게 하였다--”라는 기사 참조.

세종 26년(1444) 2월 20일(庚子)--최만리의 반대 상소문

『세종실록』 권 103, 세종 26년 2월 庚子 조에 “庚子 集賢殿副提學崔萬理等上疏曰(하략)--경자(20일)에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이 상소하여 말하기를(하략)--”이란 기사 참조.

세종 27년(1445) 1월--신숙주·성삼문 등이 운서를 질문하려고

요동에 유배된 유학자 黃瓚에게 감.

『세종실록』 권 107, 세종 27년 정월 辛巳 조에 “遣集賢殿副修撰申叔舟・成均注簿成三問・行司勇孫壽山于遼東 質問韻書--집현전의 부수찬인 신숙주와 성균관의 주부인 성삼문, 그리고 역관 손수산을 요동에 보내어 운서에 대하여 질문하다--”라는 기사와 『保閒齋集』 책7, 부록 李坡의 ‘申叔舟墓誌’에 ‘時適翰林學士黃瓚以罪配遼東 乙丑春命公隨入朝使臣 到遼東見瓚質問 公諺字翻華音 隨問輒解 不差毫釐 瓚大奇之 自是往還遼東凡十三度--그 때 한림학사 황찬이 죄를 입어 요동에 유배되었다. 을축년(1445) 봄에 신숙주로 하여금 중국에 들어가는 사신을 따라가도록 명하였다. 요동에 이르러 황찬을 만나 질문하였는데 신숙주는 언문의 글자로 중국의 발음을 번역하였으며 문제를 쉽게 풀이하여 황찬이 크게 기특하게 여기었다. 이로부터 요동을 갔다 온 것이 13번이다 --”라는 기사 참조.

세종 27년(1445) 4월--『용비어천가』(한문본) 製進

『세종실록』 권108, 세종 27년 4월 戊申 조에 “議政府右贊成權踰・右贊參鄭麟趾・工曹參判安止等 進龍飛御天歌十卷--의정부 우찬성 권제, 우참찬 정인지, 공조참판 안지 등이 『용비어천가』 10권을 받치다--”라는 기사와 『龍飛御天歌』 권 두에 부재된 安止의 進箋文에 “正統十四年 四月 日 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集賢殿大提學知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權踰 資憲大夫議政府右參贊集賢殿大提學知春秋館事 世子右賓客臣 鄭麟趾 嘉善大夫工曹參判集賢殿提學同知春秋館事 世子右副賓客臣 安止等上”이란 기사 참조.

세종 27년(1445) 5월--세종이 세자에게 양위하려다가 고만둬.

『세종실록』 권108, 세종 27년 5월 甲戌 조에 “向者予欲禪位世子 閑居養病 卿等泣請不已 勉從之”라는 기사 참조.

세종 28년(1446) 3월--昭憲王后 昇遐.

『세종실록』 권111, 세종 28년 3월 辛卯 조에 “王妃薨于首陽大君第--왕비가 수양대군의 집에서 돌아가시다--”라는 기사 참조.

세종 28년(1446) 丙寅--『釋譜詳節』과 『월인천강지곡』 편찬 시작

『월인석보』 신편의 세조 御製 서문에 “昔在丙寅 ㄱ야 昭憲王后 | 奄棄營養 ㄱ야시닐 痛言在疚 ㄱ야 罔知攸措 ㄱ다니 世宗이 謂予 ㄱ샤디 薦拔이 無如轉經이니 汝宜撰譯釋譜 ㄱ라 ㄱ야시닐 予受慈命 ㄱ스바 (중략) 撰成釋譜詳節 ㄱ고 就譯以正音 ㄱ야 俾人人易曉케 ㄱ야 乃進 ㄱ스보니 賜覽 ㄱ시고 輒製讚頌 ㄱ샤 名曰月印千江이라 ㄱ시니--네 병인년(1446)에 이셔 소헌왕후 | 榮養을 빨리 브려시닐 설버 슬쑥보매 이셔 ㄱ웁 바를 아디 못 ㄱ다니 世宗이 날드려 니르샤디 追薦이 轉經 ㄱ호니 업스니 네 釋譜를 밍그라 翻譯호미 맛당 ㄱ니라 ㄱ야시닐 내 慈命을 받즈바(중략) 釋譜詳節을 밍그라 일우고 正音으로 翻譯 ㄱ야 사름마다 수비 알에 ㄱ야 進上 ㄱ스보니 보물 주스오시고 곧 讚頌을 지스샤 일후믈 月印千江이라 ㄱ시니--”라는 기사를 참조..

세종 28년(1446) 9월--원본 『훈민정음(訓民正音)』 완성.

『세종실록』 권 113, 세종 28년 9월 조에 “是月 訓民正音成 御製曰(중략) 正音之作 無所祖述--이달에 훈민정음이 완성되었다. 임금이 지어 말씀하시기를(중략) 훈민정음을 지은 것은 옛 사람이 저술한 바가 없다--”라는 기사 참조.

세종 28년(1446) 11월--諺文廳 설치.



『세종실록』 권114, 세종 28년 11월 壬申 조에 “命太祖實錄入于內 遂置諺文廳 考事迹 添入龍飛詩--태조실록을 입내 하도록 명하고 이어서 언문청을 설치하였으며 사적을 고찰 하게 하여 용비어천가의 시가에 첨가하여 삼입하도록 하였다”라는 기사 참조. 그러나 『慵齋叢話』 권7에는 “世宗設諺文廳 命申高靈成三問等制諺文--세종이 언문청을 설치하고 신숙주와 성삼문 등으로 하여금 언문을 짓게하다--”라는 기사가 있어 언문청이 실록의 기록보다 좀더 일찍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왕실에서 언문청의 설치를 비밀로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견해가 있다(김민수1990/105).

세종 28년(1446) 12월--吏科와 取才에서 훈민정음을 부과함.

『세종실록』 권114, 세종 28년 12월 己未 조에 “傳旨吏曹 今後吏科及吏典取才時 訓民正音並令試取 雖不通義理 能合字 取之--이조에 전지하기를 ‘이제부터는 이과와 이전의 취재할 때에는 훈민정음을 함께 시험하되 비록 그 뜻과 이치에 통하지 않더라도 능히 합자할 수 있으면 채용하라’고 하다--”라는 기사 참조.

세종 29년(1447) 2월--『龍飛御天歌』 완성.

『용비어천가』 권10, 최항의 발문에 “殿下覽而嘉之 賜名曰龍飛御天歌(중략) 就加註釋 於是粗敘其用事之本末 復爲音訓 以便觀覽 共十一卷(중략) 正統十二年二月日(중략) 崔恒拜手稽首謹跋--전하가 보시고 기뻐하였다. 이름을 내려주기를 용비어천가라고 하였다. 주석을 더하여 비로소 거칠게나마 일의 쓰임에 있어서 본말을 서술하게 되었다. 다시 발음과 뜻을 붙여 보기에 편하게 하였다. 모두 11권이다. 정통12년(1447) 2월에 최항이 절하며 머리를 숙여 삼가 발문을 쓰다

--”라는 기사 참조.

세종 29년(1447) 4월--각종 취재에서 훈민정음 시험 강화.

『세종실록』권116, 세종 29년 4월 辛亥 조에 “先試訓民正音 入格者許試他才 各司吏典取才者並試訓民正音--먼저 훈민정음을 시험하고 합격한 자에게만 다른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다. 각 관청에서 이전(吏典)의 취재를 하는 경우 훈민정음을 함께 시험한다--”라는 기사 참조.

세종 29년(1447) 7월--『釋譜詳節』, 『月印千江之曲』 완성.

세종 29년(1447) 9월--『東國正韻』 완성

『세종실록』 권117, 세종 29년 9월 戊午 조에 “是月 東國正韻成 凡六卷 命刊行--이 달에 동국정운이 완성되다. 모두 6권으로 간행을 명하다--”라는 기사와 『동국정운』의 권두에 있는 신숙주의 서문에 “正統十二年 丁卯 九月下澣--정통 12년(1447) 9월 하순--”이라는 간기 참조.

세종 30년(1448); 훈민정음 언해 완성

『월인석보』 舊卷을 간행하면서 권두에 국역본 훈민정음 첨부

세종 30년(1448) 『月印千江之曲』과 함께 『月印千江之曲釋譜詳節』, 즉 『月印釋譜』 舊卷 간행

세종 30년(1448) 10월--『동국정운』 보급.

『세종실록』 권 122, 세종 30년 10월 庚申 조에 “頒東國正韻于諸道及成均館四部學堂 乃教曰 本國人民熟俗韻已久 不可猝變 勿强教 使學者隨意爲之-- 동국정운을 모든 도(道)와 성균관, 사부 학당에 나누어 주다. 그리고 임금이 말씀하기를 ‘본국의 백성들이 속운에 익숙한지 이미 오래되어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으로 억지로 가르치지 말 것이며 배우는 사람의 뜻에 따르도록 하라’ 고 하셨다--”라는 기사 참조.

세종 32년(1450) 1월--중국 사신에게 신숙주 등이 운서를 질문함.

『세종실록』 권 126, 세종 32년 윤정월 戊申 조에 “命直集賢殿成三問・應教申叔舟・奉禮郎孫壽山 問韻書使臣 三問等因館伴以見(중략) 三問・叔舟將洪武韻講論良久--집현전 직전 성삼문, 응교 신숙주, 봉례랑 손수산 등이 중국의 사신에게 운서를 질문하다. 성삼문 등이 사신이 머무는 곳에 함께 가서 맞나(중략) 성삼문・신숙주가 홍무정운을 갖고 오래도록 강론하다--”라는 기사 참조.

세종 32년(1450) 9월--開城 佛日寺에서 『月印釋譜』 목판본 간행.

미확인 자료로 “月印釋譜(중략) 佛日寺 正統 十五年 終”이란 간기를 가진 목판본 『月印釋譜』가 중국 上海 모처에 전해짐. 여기서 正統 15년은 실제로 景泰 元年(1449)이며 세종이 崩御한 세종 31년에 해당함.

문종 원년(AD. 1450) 10월-- 正音廳 설치.

『문종실록』(권4) 문종 원년 10월 戊戌 조의 기사 참조.

문종 2년(1452) 4월--『동국정운』 한자음에 의한 과거시험 실시.

『문종실록』(권13) 문종 2년 4월 戊辰 조에 “禮曹啓 進士試取條件(중략) 一.東國正韻 既已參酌古今韻書定之 於用韻無所防礙(하략)--예조에서 계하기를 진사 시험의 조건으로(중략) 첫째 동국정운은 이미 고금의 운서를 참작하여 정한 것이어서 운을 맞추는데 방해되거나 장애됨이 없다--”라는 기사 참조.

단종 원년(1452) 12월--『동국정운』과 『예부운략』의 한자운을 모두 과거에 사용하도록 함.

『단종실록』(권4) 단종 즉위년 12월 壬子 조에 “議政府據禮曹呈啓 曾奉教旨 於科舉 用東國正韻 然時未印頒 請依舊用

禮部韻(중략) 從之--의정부에서 예조가 올린 계에 의거하여  
 ‘일찍이 임금의 뜻을 받들어 과거에서 동국정운을 사용하였  
 으나 이 때에는 미처 인쇄하여 나누어 주지 못하였음으로  
 (예조에서) 청하는 바에 의하여 옛날같이 예부운에 의거하자’  
 고 하였다.(중략) 그대로 따르다--”라는 기사 참조.

**단종 3년(1455) 4월--『洪武正韻譯訓』 완성**

『홍무정운역훈』의 신숙주 서문에 “景泰六年仲春既望--경태  
 6년(1455) 중춘(4월) 보름--”이라는 간기 참조.

**단종 3년(1455)--開城 佛日寺에서 『月印釋譜』 玉冊 제작**

佛日寺 제작의 『月印釋譜』 玉冊 序文에 “景泰六年 佛日寺”  
 란 간기 참조.

**세조 4년(1458)--최항 등의 『初學字會』 편찬.**

아마도 이 『초학자회』 권두에 『훈몽자회』에 첨부된 ‘諺文字  
 母’가 부재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세조 5년(1459) 7월--『月印釋譜』 新編 간행.**

세조의 御製序文에 “天順三年 己卯 七月七日序”이란 간기  
 참조.

**세조 6년(1260) 6월--『훈민정음』, 『동국정운』, 『홍무정운역훈』을  
 과거의 출제서로 함.**

『세조실록』 권21, 세조 6년 9월 庚寅 조에 “禮曹啓 訓民正  
 音先王御製之書 東國正韻・洪武正韻皆先王撰定之書 吏文  
 又切於事大 請自今文科初場試講三書 依四書五經例給分  
 終場并試吏文 依對策例給分 從之--예조에서 계하기를 ‘훈  
 민정음』은 선왕이 만드신 책이고 『동국정운』과 『홍무정운역  
 훈』도 모두 선왕께서 정하여 편찬한 책이며 吏文은 또 事大  
 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과거의 문과에서 初場에는

앞의 세 책을 강론하는 것으로 시험하고 四書와 五經의 예에 의하여 점수를 주며 終場에는 이문을 함께 시험해서 對策의 예에 의거하여 점수를 주겠습니다'라고 하다. 그대로 따르다--"라는 기사 참조.

세조 7년(1461)--刊經都監 설치.

세조 8년(1462) 6월--과거에 홍무운을 예부운과 함께 쓰게 함.

『세조실록』 권 28, 세조 8년 6월 癸酉 조에 “禮曹啓 在先科舉時只用禮部韻 請自今兼用洪武正韻 譯科並試童子習 從之--예조에서 계하기를 ‘전에는 과거를 볼 때에 예부운(禮部韻)만을 사용하였으나 이제부터는 홍무정운을 겸용하고 역과(譯科)는 동자습(童子習)을 함께 시험하도록 청합니다'라고 하다. 그대로 따르다--"라는 기사 참조.

## 6. 結語

이상 신문자의 창제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와 시각으로 훈민정음의 제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선 이 논문에서 훈민정음을 제정하여 『龍飛御天歌』에 시험하고 이를 반포한 것이라는 종래의 통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훈민정음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만든 것이라는 주장을 부정하였다. 즉, 훈민정음의 제정은 세종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비밀리에 수행한 것으로 세종이 한자음 학습을 위하여 발음기호로 만든 것을 貞懿公主에 의하여 한문 구결을 變音吐着한 것으로 여기서 ‘變音吐着’은 한자나 그 약자로 기록한 吐, 즉 구결을 훈민정음으로 기록하였으며 이로부터 우리말의 고유어를 훈민정음으로 기록하기에 이른 것이다.

세종이 최초에 창안한 훈민정음은 ‘韻會’, 즉 『古今韻會』, 또는 『古今韻會舉要』를 번역하는 발음기호로 사용되었으나 貞懿공주에 의하여 ㅌ의 표기에 사용으로 발전하였고 이어서 고유어의 전면적 표기에 이용되어 首陽大君 등에 의한 『釋譜詳節』에서 그 가능성을 시험하였다. 세종 스스로도 『月印千江之曲』에서 우리말 표기에 자신이 창안한 훈민정음을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月印釋譜』의 권두에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부재함으로써 頒布하기에 이른다.

지금까지 훈민정음의 반포로 알려진 『해례본 훈민정음』은 이 문자를 이용하여 한자음 정리와 고유어 표기, 그리고 중국어 표준음 발음 전사에 사용되는 원리를 설명한 이론서로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문자를 반포한 것으로 보기에 너무나 전문적인 이론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훈민정음의 진정한 반포는 『월인석보』의 권두에 실린 ‘세종어제훈민정음’이 바로 세종이 창안한 훈민정음이란 신문자의 반포로 본다.

‘세종어제훈민정음’은 世祖 5년, 天順 3년에 간행된 『월인석보』의 권두에 부재되었지만 이 『월인석보』는 ‘新編’이었고 실제로는 세종 30년경(1448)에 간행된 舊卷의 『월인석보』(일명 『월인천강지곡석보상절』)가 있었고 이 책의 권두에 실린 것은 ‘世宗御製訓民正音’이 아니라 그의 생존 시에 간행된 『월인석보』에 부재된 것임으로 그냥 ‘訓民正音’이었음을 주장하였다. 이 부분이 단독으로 편철되어 항간에 유포되었으며 그것이 朴勝彬 소장의 ‘原本 訓民正音’이었음을 밝혔다.

## 참고문헌

- 姜吉云(1993), 『國語史精說』, 螢雪出版社, 서울.
- 강순애(1998), “새로 발견된 初槧本 『月印釋譜』 卷25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한국 서지학회), 제16輯.
- \_\_\_\_\_(2001), 『권20 연구·영인 月印釋譜』, 아세아문화사, 서울.
- 姜信沆(1978), “中國字音과의 對音으로 본 國語母音体系,” 『國語學』 (韓國國語學會) 第7号.
- \_\_\_\_\_(1980), 『鷄林類事 高麗方言 研究』, 成均館大學校出版部, 서울.
- 경북대학교출판부(1997), 『月印釋譜第四』, 慶北大學校 出版部, 대구.
- 河野六郎(1964~65), “朝鮮漢字音の研究,” 『朝鮮學報』 (일본 朝鮮學會), 31-35.
- \_\_\_\_\_(1968), 『朝鮮漢字音の研究』, 天理大學 出版部, 天理.
- 河野六郎(1968), 『朝鮮漢字音の研究』, 天理時報社, 天理.
- 고영근(1993),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문헌해제,”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연구』 (안병희 선생 회갑기념 논총), 문학과 지성사, 서울.
- 김민수(1955), “『釋譜詳節』 解題,” 『한글』 (한글학회), 제112호.
- 金完鎭(1980), 『鄉歌解讀法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서울.
- 김영배(1972), 『釋譜詳節』 第23・24 注解, 一潮閣, 서울.
- \_\_\_\_\_(1985), “月印釋譜 第二十二에 대하여,” 『韓國文學研究』 第8호.
- 金完鎭・鄭光・張素媛(1997), 『國語學史』, 韓國放送通信大學出版部, 서울.
- 羅常培(1965), 『漢語音韻學導論』, 太平書局, 香港.
- 南廣祐(1973), 『李朝漢字音의 研究』, 東亞出版社, 서울.
- 민영규(1969), “月印釋譜 解題,” 『韓國의 名著』, 玄岩社, 서울.
- 박병채(1983), 『洪武正韻譯訓의 新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서울.
- 박상국(1977), “월인석보 목판고,” 『文化財』 (문화재관리국), 제11호.
- 사재동(1995), 『불교계 서사문학의 研究』, 중앙문화사, 1995.
-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1a), 『역주 석보상절』 제6・9・1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 \_\_\_\_\_(1991b), 『역주 석보상절』 제13・1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 \_\_\_\_\_ (1993), 『역주 월인석보 제7·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 심재완(1962), “月印釋譜 第21, 異本攷,” 『靑丘大學論文集』, 제5집.
- 심재완·이현규(1991), 『月印釋譜--無量崛板 第21研究-』, 慕山學術研究所, 대구.
- 안병희(1979), “중세어의 한글자료에 대한 종합적 고찰,” 『奎章閣』(서울대학교), 제3호.
- \_\_\_\_\_ (1994), 『月印釋譜』의 編刊과 異本, 震檀學會編 『韓國古典 심포지엄』 第4輯, 一潮閣, 서울.
- 江田俊雄(1934), “朝鮮語譯佛典に就いて,” 『靑丘學叢』(靑丘學會), 第15號(昭和 9年 2月號) 江田俊雄(1977)에 재록.
- \_\_\_\_\_ (1936a), “釋譜詳節と月印千江之曲と月印釋譜,” 『朝鮮』(朝鮮總督府), 第255號(昭和11년 9月2日號), 江田俊雄(1977)에 재록.
- \_\_\_\_\_ (1936b), “李朝刊經都監と其の刊行佛典,” 『朝鮮之圖書館』, 第5卷 第5號(昭和 11年 10月號). 江田俊雄(1977)에 재록.
- \_\_\_\_\_ (1977), 國書刊行會編 『朝鮮佛教史の研究』, 昭和 52(1977), 東京.
- 小倉進平(1940), 『增訂朝鮮語學史』, 刀江書院, 東京.
- 小倉進平(1964), 小倉進平·河野六郎 『增訂補注朝鮮語學史』, 刀江書院, 東京.
- 俞昌均(1966), 『東國正韻研究』, 螢雪出版社, 서울.
- \_\_\_\_\_ (1978), 『蒙古韻略과 四聲通解의 研究』, 螢雪出版社, 大邱.
- 李基文(1961),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서울.
- 이돈주(1990), 『訓蒙字會漢字音研究』, 弘文閣, 서울.
- 이동림(1959), “月印釋譜와 關係佛經의 考察,” 『白性郁博士頌壽記念佛教學』 論文集.
- 鄭然燦(1972), 『洪武正韻譯訓의 研究』, 一潮閣, 서울.
- 정연찬(1972), “月印釋譜 第一·二 解題,” 『影印月印釋譜 第一·二』, 西江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서울.
- 정광 외(2006), 『역학서와 국어사 연구』, 太學社, 서울.
- 拙著(1990), 『朝鮮朝譯科試券研究』, 大東文化研究院(成均館大學校附設), 서울.
- 줄고(2001), “所謂 佛日寺版 『月印釋譜』 玉冊에 대하여,” 제28회 국어학회 공동연구회(2001년 12월 21일, 국제청소년센터) 발표요지.
- \_\_\_\_\_ (2002a); “『月印釋譜』의 編刊 再考,” 국어사자료학회 제12차 정기학술대회(2002년 2월 4일 대구교육대학) 발표요지.
- \_\_\_\_\_ (2002b); “成三問의 학문과 조선전기의 譯學,” 『語文研究』(韓國語文教



- 育研究會), 제30권 제3호, pp.259-289.
- \_\_\_\_(2003), 2003년 10, “朝鮮漢字音の成立と變遷” 日本 中國語學會 第53回  
全國大會 Symposium “漢字音研究の現在” 主題發表.
- 拙著(2002), 『譯學書 研究』, J&C, 서울.
- \_\_\_\_(2006), 『훈민정음의 사람들』, J&C, 서울.
- 천혜봉(1977), “初槩本 月印釋譜 卷 第七・八 解題, 『影印 月印釋譜 第七・  
八』, 동국대학교 出版部, 1981, 서울.
- 허웅・이강로(1999), 『月印千江之曲 上』, 신구문화사, 서울.

이름: 정광, 鄭光

영문이름: Kwang Chung

소속: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전공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 43-1

주소: 서울시 노원구 중계1동 360-9 두타빌 A-301

Tel: 집 031-557-2026

학교 02-2164-4207

휴대전화 011-9782-2021

E-mail: kchung9@hanmail.net

[kchung@catholic.ac.kr](mailto:kchung@catholic.ac.kr)